

금호석화, 노사상생 앞장... 직원 전문성 향상·소통 강화

글로벌 역량 갖춘 인재 육성 집중
직원-회사, 공동성장 기회 확대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노력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도전 정신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있어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 전문그룹으로 성장해 온 금호석유화학그룹은 2일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회사의 노력은 노사상생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6일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임금협상을 마쳐 33년 노사 무분규 협약을 이어나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3개 노동조합이 임금 조정 권한을 사측에 위임함에 따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노사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2011년부터 상시 학습 온라인 플랫폼인 링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링크 아카데미에서 매년 초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연

간 64시간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 과정은 리더십, 직무, 어학, 자격증, 전화외국어, 인문학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수강 임직원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차 미달성 안내 이후 2차에도 미달성 할 경우에는 수강생이 일정 수강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금은 연말에 해당 직원 명의로 복

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달성시에도 뜻깊은 나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매년 초에는 회사 게시판에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독서감상문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직원들의 지식 수준과 인문 소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여러 기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매년 새롭게 추천하는 도서를 통해 금호석유화학그룹 직원들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직무전문자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직무전문자격제도는 임직원의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는 제도로, 응시료, 학원비, 도서 및 부대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제도를 통해 최근 지원된 공인자격증으로는 AICPA(미국공인회계사), FRM(재무리스크관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CPIM(생산재고관리사), PMP(프로젝트관리전문가)

등이 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직무 전문성뿐 아니라 그룹 내에서 인재가 빠르게 성장하며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사내 그룹웨어를 활용해 업무 중 소통해줄 수 있는 임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분기마다 그룹웨어에 업로드 되는 매거진에는 '두유노' 연재물을 기획해, 회사 여러 팀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다. 잘 몰랐던 다른 팀의 업무 성격과 팀원들의 관심사,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기획하고 있다.

한편 전사적 '칭찬 릴레이'도 2012년부터 그룹웨어 상에서 진행하고 있다. 매월 임직원 3명이 업무와 회사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직원을 릴레이 형식으로 한 명씩 선정하는 방식이다. 평소에 말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칭찬 릴레이를 통해 직원들간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기아車, 쏘렌토 가솔린 터보 모델 출시

최대 281마력, 리터당 11km 연비
액티브 엔진 사운드 기능 적용

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 가솔린 2.5 터보 모델도 선보인다. 올해 초 출시와 함께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델로 돌풍을 일으킨 쏘렌토가 가솔린 모델 합류로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쏘렌토 가솔린 2.5 터보는 기존 쏘렌토 가솔린 2.0 터보 모델 대비 배기량을 늘리고 '스마트스트림 G2.5T'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8DCT(터블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해 최고출력 281마력(PS), 최대토크 43.0kgf·m의 우수한 동력성을 구현했다.

기아차는 엔진에 '듀얼 퓨얼 인젝션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쏘렌토 가솔린 모델 대비 14.5% 개선된 리터당 11km의 연비를 달성했다.



쏘렌토 가솔린 2.5 터보 모델.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된 디자인 트림 '그라비티'와 외장 색상 '윈웨이 레드'를 가솔린 모델에도 운영하고 그라비티 트림에 20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을 추가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가솔린 모델에만 적용되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는 엔진과 크랭크 피커에서 출력되는 각각의 사운드를 합

성, 동력성능 및 주행모드와 어울리는 엔진음을 연출해 주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쏘렌토 가솔린 2.5 터보 모델의 가격은 ▲트렌디 2925만원 ▲프레스티지 3210만원 ▲노블레스 3505만원 ▲시그니처 3789만원 ▲그라비티 388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5G 요금제로 홈 IoT 사용하세요"

스마트홈팩 서비스 신설

LG유플러스는 5G 요금 카테고리팩에 '스마트홈팩'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U+5G 요금제 2종에 가입하면, 구글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기 및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스마트홈팩'은 U+5G 모바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선택형 프리미엄 서비스 중 하나다. 신설된 '스마트홈팩' 이용자는 ▲7인치 화면이 장착된 AI 스피커 '구글 네스트 허브' ▲조명 색·밝기 변경 및 속면·집중모드 기능 등을 가진 '무드등' ▲가전제품의 전원을 제어하고, 화재 위험 방지가 가능한 '멀티탭'을 한데 모아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홈팩'은 '5G 프리미어 슈퍼'



모델들이 '스마트홈팩' 서비스 신설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플러스' 2종 요금제에 가입할 시 선택할 수 있다. 두 요금제는 각각 월 11만5000원·10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5G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 및 'LTE 요금 그대로' 혜택을 중복 적용 받으면 각각 월 8만1000원·7만3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김나민 기자

SKT, '5GX슈퍼노바' 본격 상용화

SD ▶ FHD 업스케일링

SK텔레콤은 자사 인공지능(AI) 영상화질 개선 기술 '5GX슈퍼노바'를 방송·미디어 분야에 본격 상용화한다고 2일 밝혔다.

SKT의 '5GX슈퍼노바'는 AI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디올디파이(De-olify) 기술을 통해 영상이나 음원의 화질을 원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2017년 개발된 이래 Btv 오리지널 콘텐츠 화질개선 작업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 고도화 등에 활용돼 왔다. 디올디파이란, 오래된 영상을 최신 영상으로 리마스터링하는 미디어 AI기술이다.

SKT는 최근 MBC와 '5GX슈퍼노바'를 활용해 과거 콘텐츠들을 고화질로 개선하는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했다.

SKT와 MBC는 이를 위해 기존 '5GX슈퍼노바' 인공지능경망을 MBC 콘텐츠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축하고, MBC 콘텐츠 아카이브의 저화질 영상과 고화질 영상의 상관관계를 학습시켰다.

이번 화질개선 작업은 일반화질(SD)을 풀 고화질(Full HD)로 업스케일링하는 것으로, 공동 개발 과정에서 수차례 MBC 전문 평가단의 리뷰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렉서스 ES 300h.

렉서스코리아

ES 300h '올해의 차' 선정

렉서스코리아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ES 300h'가 2020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체험평가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체험평가 '올해의 차'는 소비자 전문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평가부분 중 하나다.

/양성운 기자

KT "소통·업무·협업 한번에 관리하세요"

올인원 협업툴 'KT 워크스' 출시

KT는 메신저와 화상회의, 업무관리를 합친 올인원 협업툴인 'KT 워크스(Work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T 워크스는 화상회의, 협업툴, 문서중앙화, 클라우드PC 등 KT 기업용 비대면 종합 업무 솔루션인 KT 디지털 워크스 제품군의 하나다.

KT 워크스는 기존 메신저 기반 협업툴이 수많은 알람으로 인해 집중력이 분산되고, 채널 중복으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점을 보완해 업무용 메신저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관리로 협업기능을 분리했다.

커뮤니케이션은 익숙한 메신저 형태로, 업무 공유는 게시물 타임라인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구분했다. 아울러 계



KT직원들이 'KT 워크스'를 사용하며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KT

시물 형태의 타임라인에서 화상회의를 바로 실행하거나 중요한 일정을 불러오는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해 실시간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김나민 기자